

* 지난주 강단제목 :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 (수 1:7-8, 딤후 1:13-1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임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82. 빌립보서 2장 / 인도자와 회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11)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다같이
증보의 기도	(1부) 최명홍 장로 (2부) 정세완 장로
성경봉독	출애굽기 12:23(구약 99쪽), 로마서 5:8-10(신약 245쪽) / 인도자
찬양	(1부) 나의 예수님께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임재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사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출애굽하라 -복음으로 여는 출애굽기- / 설교자
봉헌	(1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2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 김희권 장로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 · 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신승훈 장로 (2부) 라종화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정수환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양은숙 권사

(오후) 조현지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연합남선교회
설교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연합여전도회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추수감사절(11월 15일)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2부예배 직후 3층 대청부실에서 세례교육이 진행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2. 소망부 야외캠프가 10월 19일(월)에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장소 : 경기도 양평 일대)
3. 다음 주 주일(10월 25일)은 제 509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이자 총회주일입니다. 초대교회와 개혁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하는 총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중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주일헌금은 본교회 일반헌금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 입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 000 총회)
4. 다음 주 주일(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프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5. 다음 주 주일(10월 25일) 램네프서 연합예배 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참사랑집중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1) 제목 : 찬국복음 구원의 길(마24:14). 2) 강사 : 심재문 목사(고양영광교회).
 3) 시간 : 1강(3:30-4:20), 2강(4:30-5:20). 4) 장소 : 5층 참사랑홀.
6.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옵니다.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종교동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프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임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금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10.19~28 아프리카(케냐) 선교캠프)
2. 대학입학시험(11월 19일 목요일)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네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서, 김도연, 안지훈, 문성원, 김민주, 심성하, 김주원, 양승우 / 명단에 누락된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로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프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2) 트릭킵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교회소식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랩넛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모집 중)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가,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37화요제자훈련이 10월 20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 특강이 '나를 살려라(행2:9-11)', '5포럼 시대 열려라(행18:1-4)'를 주제로 10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독일 임마누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 237새가족현장자역자훈련이 11월 3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제48차 치유사명자대회가 '새로운 치유의 시작(행13:1-12)'을 주제로 11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10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오세아니아 램넛대회(9.30~10.1)
1주차	세례신청(4), 하반기 전교인전도캠프(7~8) / 결혼선교예비학교(5), 세계RTS대회(6), 제23차 2026 세계군선교대회(9~11)
2주차	강남노회 가을정기노회(12) / 일본전도집회(13~14)
3주차	세례교육시작(18) / 237화요제자훈련(20, 덕평 RUTC), 램넛데이(24)
4주차	종교개혁기념주일, 램넛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5) / 유럽전도집회 및 유럽산업인 특강(27~29, 독일 임마누엘교회)

10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배승찬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6층) 배승찬 양경심
안내위원	(위원장) 임근일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제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정 이수용-이미자 오국환-이은희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백소정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임경미 김경희 배승찬 이 명 양경심 임근알 양은숙 최철규-한영화 여준석-양경아 최신헌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영잔-최혜숙 김순호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김희권 김나경 임영순 김미자 이세호 김용관-김정순 김재귀-장소녀 김춘례 이은희 조성균-김갑례 김주영 정향완 이영순 이순근 유제숙 박인자 최재경 호민수 최송화 여 명 손병순-박정주 윤순옥 전은정 박난수 주재진 나경철-신현식 임소순 김경애 임혜미 정민호-이서은 박숙자 문길순 김정연 박찬열 김지수 강주영 황혜주 박주은 조현지 김태운 방주은 송길호 오아라 정수환 김지후-이현주 유승환-최이현 김소라 고진순 고경훈 김현성-이미화 임혜연 김명철 장유미 유영석 이효숙 김창균-임예진 김승훈-김혜인 김영희 채송아 안선희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최신영 유충현-강공이 김현상-이미화 배형식-박인자 소귀영-장영호 이채은 김정연 김경애 박은서 김지수 이민형 아이연 김성재-윤태자 고경훈 김금남 나경철-신현식 이수용-이미자 김경희 김나경 김미자 홍경아 주은경 채송아 주재진 배준서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양경심 박학규 박천재 김미자 김경애 이영경 정민호-이서은 홍경아 아이연 최영국-김윤지 김지후-이현주 이은숙 최신헌 박영인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최재경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숙-임민재
차량헌금	정윤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이현규-김수진 김원일-전인숙 임영순 김미자 강공이 여동훈-백소정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방주은 김순호 김창균-임예진 이수용-이미자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김경희 채송아 주재진 조부영
캐냐선교	전정아 김미자 주재진 유충현-강공이 김금남 임영순 오국환 이은숙 김영진 이영경 정향완 김영순 김순호 이은희 이미화 유승범 신승훈-박영인 김지수 유경형-리종화 송영희 무명3
치유센터	정윤돈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총계 551,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현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김미자 임영순 장영호-소성국 배형식-박인자 유승범-주은경 김태운 방주은 조현지 정수환 김순호 이수용-이미자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김나경 채송아
장학헌금	정윤돈 김미자 강공이 정수환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이수용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주재진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RUTC헌금	정윤돈 김미자 강공이 임혜미 정수환 이수용-이미자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채송아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10. 7. ~ 2026. 10. 13.)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123,588,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86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1,938,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847,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5,000,000엔 (한화 3,960,500,000원 / 100엔환율=89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김홍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이준영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운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수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이세호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지아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박천재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장영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앤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u>김숙희</u> 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

여호수아 1:7-8, 디모데후서 1:13-14

들어가는 말씀

오늘 말씀제목은 ‘충성된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과 복음’이다. 김동길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김갑사와 김요셉이다. 그때는 충각이었지만 지금은 두 사람 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다.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NGO 사업과 학교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허락을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지 언어와 영어를 잘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설명과 설득이 잘되고 금방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님이 20~30년 현장에 있어도 언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후대가 자라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알고 팀이 되니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목회자로, 한 명은 NGO사역을 하며 함께 팀이 되었고 며느리도 간호사 출신이 들어왔다. 15년 전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선교사님이 약 20년 동안 사역했던 현장을 잃고 쫓겨나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는데 한 사모님이 헌신하여 빛을 내 3천 평 정도의 땅을 사주었다. 그때 내가 NGO를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 조언했고 새로운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사역이 30년을 지나 또 새로운 30년을 향해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후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미션과 복음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케냐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 가정을 보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고 제자를 잘 세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장에 가면 오랫동안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내렸는지, 가정의 흐름과 영적 문제는 어떤지 자세히 보는 편이다. 그런데 케냐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랐다. 숫자는 약 30명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훈련이 잘되어 있었다. ‘선교사님이 후대와 제자를 참 잘 키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여호수아도 언약했기 때문이다. 디모데도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한 충성된 제자였다. 우리도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고,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같이 70현장과 237나라를 사실적으로 살리는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충성된 제자인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의미의 충성이 아니다. 진도자의 삶 21가지를 일곱 가지 흐름으로 목상해 보면 충성된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릭방이다. 이것은 복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세상적인 일은 잘될 수 있어도 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충만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둘째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내가 스스로 인생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라는 목표를 주셨다.(마28:18-20) 우리의 절대목표는 세계복음화이다. 그것을 나의 현장에 맞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아야 한다.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70현장으로, 237나라로, 5천 종족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는 당연, 필연, 절대이다. 꿈만 크고 지극 해야 할 작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잠깐 뜨겁게 하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시간은 늘 해야 할 일을 반복한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제 끝나나, 언제 그만두나’하며 살았지만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충성을 다하면 그 시간이 10년이면 40년이면 상관없다. 넷째는 일심, 전심, 지속이다. 가정도, 교회봉사도, 사업도, 진도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면 안 된다. 평생을 두고 천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대단한 것을 잠깐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오늘 할 일을 평생 지속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CVDIP, 즉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배울 것과 바라는 것이 계속 보인다. 창조적인 사람에게는 마음에 감격과 선행이 있다. 진도도 복음 안에서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 오직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유일성이 보이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된다. 여섯째는 24, 25, 영원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 앞에 안병원이 있어서 환자 가족들이 예배에 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장 암이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메시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삼촌(고후12:1-10)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갔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 질병이나 경제문제나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가 먼저 없어지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도 이번 케냐사역을 준비하면서 김동길 선교사님이 침대 30개와 이부자리, 베개, 매트리스 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았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강의하러 가는 것인데 왜 침대 수십 개까지

요청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번에 여러 지도자와 후원자들이 모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준비라는 것도 보였다. 선교사님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 선교사님들은 여러 후원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1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할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다른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보라’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일곱째는 각인, 뿌리, 체질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어 가야 한다. 디모데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온갖 부담 되는 말과 요구를 남긴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부탁이다. 우리가 이 연약의 여정을 따라가며 모세와 바울 같은 스승, 여호수아와 디모데 같은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일곱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확립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이고, 그러면 오늘 해야 할 당면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일이 보인다.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당하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고, 24:25 영원의 기도 속에서 결국 나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까지 바뀌게 된다. 충성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연약의 여정을 평생 따라가는 것이다.

서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반복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받아 지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이 절대미션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대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불가능한 나를 쓰셔서 절대가능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다. 디모데는 마음이 여리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설교원고를 마친 뒤 ChatGPT에 띄어쓰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올렸더니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하고 몸이 약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디모데의 예민하고 연약한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함께 일했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다. 건축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교에 온 분인데 교회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중무 역할을 했다. 몇 천 명되는 교회의 1년 행사계획을 줄을 맞춰 작성해서 유리판 아래에 놓고 하나하나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했다. 그런데 늘 속이 좋지 않아 마르고 힘들어했다. 너무 세세하게 신경을 쓰다보니 장이 안 좋았던 것이다. 디모데도 이런 식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 그렇다고 ‘내 약점이니 까 괜찮다’며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건강도 성격도 영적인 부분도 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부분이 망가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무너져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우리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 내가 어떤 부분에 예민한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지, 건강에서 무엇이 약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깨닫기만 해도 갱신이 시작된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했다. 약함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약함이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미션

1)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거세진 상황에서 바울이 여러 디모데는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다고 하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유대공동체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다. 직장과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해야 했으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의 약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디모데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겨 갇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다소 부끄럽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복

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중독과 타락,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살릴 답은 복음이다. 중국에 가 보면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말씀을 너무나 갈급하게 받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 '이 나라가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서도 제자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한일 간의 감정이 사라진다. 우크라이나도 정치적 문제 이전에 현장에 얼마나 좋은 제자들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 러시아 선교이야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공격뉴스를 보고 "드론 날아온데 나 안 갈래요"하고 농담한 적도 있지만, 결국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복음과 선교이다.

2)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한다.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지키려고 도전해야 한다.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다.

3)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다. 진도와 선교를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명품이나 꽃, 자연과 작품을 아름답다고 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다. 복음과 진도와 선교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 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다. 세상의 많은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 허무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4) 사람을 분별하고 조심하라 바울은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사람을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미션도 남겼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니니 그 중에는 벡레토와 허모게네도 있는니라"고 했고, 4장에서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주의하라고 했다. 교회는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므로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이 오히려 사기나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에 다니던 친척에게 들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광고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옆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만 믿고 돈이나 사업문제로 함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뜻도 아니다. 사람을 믿고 기대하기보다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이 부분은 도와주어야겠다. 지금 이 말은 헛된 말이니구나. 이 문제는 조심해야했구나'하는 것이 보인다. 교회 안에서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나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하면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체질된 중간 사역자가 중요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는 말씀처럼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를 보면 된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고 분란을 막는 길이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딤후4:14)'라고 했다. 구리세공업이라는 작업은 우상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새기족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래된 가문과 삶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 믿는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체질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말씀으로 사탄의 망대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고 한다.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안으로는 복음으로 강하고 밖으로는 부드러운 외유내강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2장 2절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이것이 교회와 세계복음화가 지속되는 방법이다. 충성된 제자를 찾아 그 제자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제자를 보내주소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제자를 참사랑교회에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한다.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축복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모두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거의 명령하듯 말한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한다. 교회 리더는 이런 자세를 계속 추구하며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 2장 16절에는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고,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한다. 3장에서는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너는 이것을 일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배역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3:1-5)" "자기를 사랑하며" 즉 창세기 3장의 체질에서 벗어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6:5).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창세기 6장, 11장을 의미한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6:10)"라고 했다. 내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필요한 것은 따라오지만 돈만 따라가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로 길게 열거한다. 모든 항목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직접 읽으면서 ‘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2. 디모데후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

1)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로 구원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3)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항상, 무시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복음만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답이다.

4)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단순히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라고 한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다. 왜 그렇게까지 명하는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사탄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정문제, 개인문제, 인간관계문제, 국가 간의 문제까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모든 성도에게 ‘나와 같은 인생을 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했다. 자신의 순교와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다.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후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충성된 제자의 마지막 고백이다.

결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넛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헌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헌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선옥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헌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상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웅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60여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